



NAKS
The National Association for Korean Schools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제 1 회

『충무공 이순신』

글쓰기 대회 응모작품



학생 성명	한글	우현성	영어	Hyunsung Woo			
그룹 (O 표)	옥포상	O	한산상		명량상		
소속 학교	앤아버 한국학교 미시간 한국학교 협의회						
한국에서의 학교 경험	한국에서 학교를 다녔음: 예 (O) 아니오 ()			다녔을 경우: 1, 2, 3 학년 매년 여름 한달씩 총 세 달			
학년/생년월일	4	학년	2008	년	11	월	5 일
제목	나라를 지키신 이순신 장군						

응모 번호 (이 난은 기입하지 마세요)	
---------------------------------	--

응모 번호 (이 난은 기입하지 마세요)	
---------------------------------	--

줄 아래에서 바로 쓰기(타이핑) 시작하십시오.

이순신 장군은 나라를 지키셨어요.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조선의 백성들을 위하여 계속 싸우셨어요. 이순신 장군이 없었다면 일본이 임진왜란에서 이겼을 것이고, 우리는 지금 일본식 이름을 가지고, 일본어를 배우고 있을 거예요. 생각만 해도 아찔해요.

이순신 장군은 1545 년, 조선 한성(서울)에서 태어났어요. 어릴 적 이순신 장군은 책읽기도 좋아하고, 특히 전쟁놀이를 좋아했대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은 커서 무인이 될 거라고 결심한 것 같아요.

이순신 장군은 군인이 되는 무과 시험에서 말에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다리가 부러졌는데, 버드나무 가지를 꺾어서 다리에 묶고 시험을 끝냈어요. 그 시험에서는 떨어졌지만, 다시 시험을 쳐서 무관이 되었어요.

옛날에는 전화도 없어서 멀리서 무슨 일이 있어도 빨리 알 수가 없었어요. 컴퓨터도 없어서 지금처럼 무언가를 디자인하거나 복잡한 계산을 할 수도 없었을 거예요. 이순신 장군은 그 때

사람들은 생각도 할 수 없었던 거북선을 만들었어요. 단단한 철갑으로 덮여 있고, 무서운 거북이 머리에서 대포가 팽! 팽! 나가는 멋진 전투선이었어요. 왜놈들은 무서운 거북선을 보기만 해도 덜덜 떨었을 거예요.

이순신 장군은 이순신 장군을 싫어하는 나쁜 관리들이 거짓말을 해서 두 번이나 큰 벌을 받았어요. 장군이 아니라, 흰 옷을 입고 졸병이 되어서 싸워야 하는 벌이었어요. 이순신 장군은 정말 억울한 마음이었겠지만, 그래도 나라와 백성을 지키려고 ‘내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마라’하시며 돌아가실 때까지 싸우셨어요.

그리고 왜적에게 질까 봐 벌벌 떠는 군사들에게 ‘죽기를 각오하면 살 것이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하셨어요. 그렇게 싸운 노량해전에서는 거북선도 없이 겨우 12 척의 배를 가지고도 전투에서 이기셨지요. 단 한 번도 진 적 없는 최고의 장군이었어요. 우리 선생님께서 요즘 해군에서도 이순신 장군의 학익진 같은 전술을 공부한다고 하셨어요. 그만큼 지혜로운 전투 방법을 생각하신 분이었어요.

나도 이순신 장군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순신 장군처럼, 책을 많이 읽고, 또 한국학교 숙제도 열심히 할 거예요. 한국학교 숙제를 열심히 하면 한글도 잘하고, 한국의 역사, 이순신 장군 같은 우리 나라의 훌륭한 위인들에 대해서도 잘 알 수 있으니까요.